

##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비교

世明大學校 韓醫科大學 原典醫史學教室

趙學俊 \*

### Comparison of 29 Diagrams of Heart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明堂臟腑圖)

Jo Hak-jun \*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The transition of the 29 diagrams of Heart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will be used to understand the shape of heart and the changes of people's understanding of heart.

**Methods** : The 29 diagrams of Heart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 are divided according to their shape elements (Heart itself, internal curvatures, structures above heart, wuzangxi, and excursus). Then its transitions are analyzed, and each shape element is compared to modern anatomy and its textual basis is searched.

**Results** : The lengthy cylindrical organ situated above the heart is composed of upper part consisting with joints and the lower part void of joints. The upper part is Pyewan (such as the lungs) and fall into trachea. The lower part is Xinxi or Feixi which are either relative vein (or aorta) or left bronchus that passes behind the heart. This depiction of the structures around the heart can be considered to have composed by actual observance of a physical heart, a method that is similar to anatomy. However, the shape of the heart itself is described as a lotus flower that has not been bloomed, a depiction which finds its origin from *Zhongguangbuzhu huangdineijing suwen* (762). The three short curvatures inside the heart is described as Pericardium, influenced by *Shisijingfahui* (1341) in its depiction, or as sammo, influenced by *Nanjing*. Structures that are connected directly from the heart to spleen, kidney, and uterus are not found in modern anatomy. The saying in *Excursus* "All cords of five internal organs belong to heart" is based on *Huatuoxuanmenneizhaotu*, and this is changed to the saying cords of four internal organs belong to heart in *Leijingtuyi* for the first time.

**Conclusions** : The authors of medical scriptures at the time did not have a method of direct observance when they were copying heart diagrams. Therefore, they made changes to the source material's diagram and excursus while being influenced by *Nanjing*, *Huatuoxuanmenneizhaotu*, and *Shisijingfahui*. Then the doctors' understandings with regards to the shape and function of heart were reflected during that process.

**Key Words** : Diagram of heart, *MingTangZangFuTu*, Xinxi, cords of five internal organs

## I. 서론

현대 해부학적 지식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類經圖翼』의 臟腑分圖과 같이 인체내부를 묘사한 그림을 처음 접할 때, 대체로 인체내부의 실제 모습과 동떨어지게 표현되어 있다는 점을 근거로 동아시아의 전근대 의학의 해부학적 수준이 서양에 비해 뒤떨어졌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그 판단은 臟腑圖의 유래나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발생한 것이다.

臟腑分圖에 인체 내부의 臟腑를 비롯하여 다양한 구조물이 묘사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그 그림을 解剖圖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옛사람들이 인체 내부에 대한 인식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보는 편이 더 합리적이다.

현재 전해오는 臟腑圖 중 가장 오래된 것은 煙蘿子內境圖(五代), 歐希範五臟圖(北宋), 存眞圖(北宋)인데 그 중 歐希範五臟圖와 存眞圖는 실제 해부를 거쳤다는 史料가 존재하지만,<sup>1)2)</sup> 그 이후의 臟腑總圖나 臟腑分圖(臟腑가 각각 표현된 그림)는 해부를 통해 얻어졌다는 史料는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다.

明堂臟腑圖는 元代 忽泰의 『金蘭循經』(1303)에 처음 실렸지만 그 책이 전해오지 않다가 明代 『鍼灸聚英』을 통해서 臟腑總圖인 五藏六府之圖(1폭)와 臟腑가 각각 표현된 臟腑分圖(10폭)가 비로소 전해져 오며<sup>3)</sup>, 다시 그 그림을 다른 여러 서적에서 인용하

고 또 心包圖, 三焦圖, 命門圖 등을 추가함에 따라 明堂臟腑圖는 현재 『鍼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類經圖翼』, 『鍼灸原樞』등 4가지 계열로 분류되고 있다.

『鍼灸聚英』에서 처음 나타난 臟腑分圖를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分圖’라고 부른다면, 그 중 心臟圖는 마찬가지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라고 부를 수 있다.

『鍼灸聚英』을 통해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가 여러 서적에서 인용되는 과정에서 心臟의 형태와 몇 개의 絲系 등의 기본 형태는 유지되었지만 미세하게 변형되었음을 발견하였는데, 그러한 變異는 肝臟圖<sup>4)</sup>, 肺臟圖<sup>5)</sup>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이 이미 밝혀져 있다.

黃龍祥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臟腑分圖 14종에 대해 4가지 계열로 분류하였고<sup>6)</sup>, 필자는 29종에 대해 분류하였고<sup>7)</sup>, 이명철 등은 『三才圖會』, 『類經圖翼』의 臟腑分圖 열두 폭을 비교하였고<sup>8)</sup>, 중국에서는 臟腑總圖를 “明堂圖”源流簡考<sup>9)</sup>, 五臟圖考<sup>10)</sup> 등에서 대표적으로 다루었다. 그렇지만 기존의 연구에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의 變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만약 『鍼灸聚英』을 통해 전해져 오는 明堂臟腑圖가 忽泰의 해부를 통해 얻어졌다고 가정하더라도 아직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史料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鍼灸聚英』의 臟腑分圖가 등장한 이후 여러 醫書에서 그와 유사한 그림이 실려 있지만 그 저자들

한 것이다. 醫家들이 五藏六腑를 나누어서 그림을 그렸는데 明代 중엽 高武의 『鍼灸聚英』에서 가장 처음 나타난다.”

\* Corresponding Author : Jo Hak-jun, Dept. of Korean Medical Classics & Medical History, Semyung University. 65, Semyeo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Tel : +82-43-649-1347. Fax : +82-43-649-1702.

Email : palm01@hanmail.net

Received(20 July 2017), Revised(10 August 2017),

Accepted(17 August 2017)

\* 이 논문은 2016학년도 세명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된 연구임

1)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24(2):68-77.

2) 余瑋, 陳鳳國, 趙國平. 試論古代中國解剖學史.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5;39(6):503.

3)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0. “현재 전해 오는 明堂圖 중에 최초는 元代的 正人, 伏人, 側人의 三人明堂圖이다. 그 臟腑圖는 臟腑明堂圖라고 명명하고 側人臟腑總圖에 속하는데, 北宋 楊介의 存眞圖 중 正面臟腑圖, 背面臟腑圖를 하나의 臟腑總圖로 합성

4)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31-54.

5)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외사학회지. 2016. 29(1). pp.11-31.

6)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0.

7)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pp.31-54.

8) 이명철 외 3인.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臟腑圖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2). pp.149-168.

9) 潘萍, 郭義, 王東強. “明堂圖”源流簡考. 針灸臨床雜誌. 2008. 24(5). pp.1-4.

10)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pp.68-66.

Table 1. 29 Diagrams of heart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明堂臟腑圖)

분류	소속 서적	종수
鍼灸聚英 계열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楊繼洲의 鍼灸大成, 醫家赤輻益辨全書, 鍼方六集,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藏府證治圖說人鏡經, 身經通考	10
靈樞註證發微 계열	靈樞註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5
類經圖翼 계열	類經圖翼, 經絡滙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瘍醫大全,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13
鍼灸原樞 계열	鍼灸原樞	1
합계		29

이 해부와 같이 직접적으로 인체 내부를 관찰하여 그렸다는 기록은 아직 없다. 또한 그 그림들이 여러 서적을 걸쳐 그대로 模寫된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변형되는데, 그러한 變異는 단순한 실수로 본다거나 우연의 결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에 동아시아의 전근대 醫家들이 臟腑의 형상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에 대해 형태요소(心臟本體, 내부의 곡선, 心臟 위쪽의 구조물, 五臟系)와 附記로 나누어 그 變異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가 현대 해부학의 지식과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臟腑의 형태를 변형시킨 근거가 해부의 결과가 아니라 문헌임을 뒷받침하고자 心臟圖에 대한 문헌근거를 탐색하였다.

## II. 본 론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을 黃龍祥의 明堂臟腑圖源流<sup>11)</sup>의 분류에 따라 『鍼灸聚英』, 『靈樞註證發微』, 『類經圖翼』, 『鍼灸原樞』의 4가지 계열로 분류하면 Table 1과 같다.

현재로서는 臟腑分圖가 실린 서적이 모두 몇 종인지 알려져 있지 않다. 그와 같은 한계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다른 그림은, 연구 당시 구할 수 있는

범위에서 중국, 일본의 臟腑分圖를 대상으로 한정하였으며, 해당 서적 29종은 Table 2와 같다. 복수의 판본이 존재하면 출판연도가 빠른 것을 사용하였다. 다만 『鍼灸大成』은 續修四庫全書 본이 좀 더 앞서지만, 대성문화사 출판본의 그림이 더욱 선명하며 두 판본의 그림이 본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대성문화사 출판본을 사용하였다.

### 1.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의 變異와 계열

#### 가. 變異

##### 1) 心臟 본체의 형태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Fig. 1)는 꼭지부분이 움푹 들어간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공통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다만 『藏府證治圖說因鏡經』은 비스듬한 구도를 취하고 있어서 다른 그림의 구도와 다르다.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계열의 心臟圖(Fig. 2)는 모두 꼭지부분이 움푹 들어간(凹)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Fig. 3, Fig. 4)는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공통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그중 『類經圖翼』, 『藏府指掌圖書』에는 꼭지부분이 비교적 평평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반해, 『經絡滙編』,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 『瘍醫大全』에는 대체로 꼭지부분이 움푹 들어간(凹) 것으로 묘사

11)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0.

Table 2. Sources of diagrams of heart

서명	저자	최초간행연도	서명	저자	최초간행연도
鍼灸聚英	高武	1529	藏府指掌圖書	施沛	明代
古今醫統大全	徐春甫	1560	醫學原始	王宏翰	明代
鍼灸原樞	吳嘉言	1563	藏府證治圖說人鏡經	錢雷	1662
靈樞註證發微	馬蒔	1606	身經通考	李濂	清代
鍼灸大成	楊繼洲	1601	(新編)鍼灸要法指南	岩田利齋	1686, 日本
醫家赤幟益辨全書	吳文炳	1605 年후	鍼灸拔萃大成	岡本一抱	1699, 日本
三才圖會	王圻	1606	和漢三才圖會	寺島良安	1712, 日本
經絡考	張三錫	1609	醫部全錄	陳夢雷	1725
鍼方六集	吳昆	1618	醫宗金鑑	吳謙	1742
頤生微論	李仲梓	1618	鍼灸重寶記	本郷正豊	1749
福壽丹書	龔居中	1624	瘍醫大全	顧世澄	1760
類經圖翼	張介賓	1624	經絡相法	俞培林, 蔣千里	清代
經絡滙編	翟良	1628	傳悟靈濟錄	張衍恩	1869
丹臺玉案	孫文胤	1636	經脈圖考	陳惠疇	1868
醫宗必讀	李仲梓	1636			

되어 있고, 『醫宗必讀』, 『醫宗金鑑』,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絡圖考』에는 꼭지부분과 원통형 막대기와 경계가 없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특히 『經絡相法』은 아래쪽이 뾰족하게 묘사되어 있다.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Fig. 4)는 꼭지부분이 평평한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다.

## 2) 心臟 내부의 곡선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Fig. 1)는 『鍼灸大成』,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을 제외하고 모두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이 표현되어 있지만 『鍼灸大成』에는 심장 내부에 아무런 선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특히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은 비스듬한 구도를 취하고 있어서 다른 그림과 전혀 다른데 심장의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 대신 심장의 상단에 두 줄이 가로질러서 마치 하나의 둥근 고리처럼 표현되어 있다.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Fig. 2)는 심장 내부에 아무런 선이 표현되지 않는다.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Fig. 3, Fig. 4)는 심장 내부에 아무런 선이 표현되지 않지만 『瘍醫大全』에는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이 표현되어 있다.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Fig. 4)에는 심장 내부에 아무런 선이 표현되지 않는다.

## 3) 心臟 위쪽의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Fig. 1)는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를 제외하고 모두 심장 본체 상단의 중앙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 1개가 있다. 그 상단에 7~9개의 마디가 표현되어 있고, 하단에는 마디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

이 구조물 상단에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Fig. 1) 중에서 『鍼灸聚英』, 『古今醫統大全』, 『鍼灸大成』, 『醫家赤幟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즉 『鍼方六集』, 『臟腑證治圖說因鏡經』, 『身經通考』는 제외)은 모두 ‘肺腕’이 표기되어 있다. 또한 『古今醫統大全』, 『鍼灸大成』, 『醫家赤幟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에는 마디의 상부에 ‘心系’도 함께 표기되어 있다(아래의 Table 3 참조).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Fig. 2)에는 『鍼灸聚英』과 마찬가지로 心臟 본체 상단의 중앙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 1개가 있는데, 이 구조물의 윗부분에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에는 마디가 전혀 없지만 동일계열의 다른 그림에는 7~9개의 마디가 있다. 또한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에는 ‘肺腕’과 ‘心系’가 상하로 표기되어 있고, 『和漢三才圖會』에는 ‘肺系’와 ‘肺管’이 상하로 표기되어 있고, 『醫部全錄』에는 아래에만 ‘肺管’이 표기되어 있다(아래의 Table 3 참조).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Fig. 3, Fig. 4)에는 『鍼灸聚英』과 마찬가지로 모두 상단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 1개가 있는데 『傳悟靈濟錄』을 제외하고 그 윗부분에 7~10개의 마디가 표현되어 있다. 또한 『類經圖翼』, 『經絡匯編』, 『醫宗必讀』,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絡圖考』에는 ‘肺系即肺管’이 표기되고 있고,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에는 ‘肺系即氣管’이 표기되어 있고, 『瘍醫大全』에는 ‘肺系即肺腕’이 표기되어 있다. 특히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에는 9마디의 아래에 ‘心系’가 함께 표기되어 있다(아래의 Table 3 참조).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Fig. 4)에는 심장의 상단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 1개가 있는데 그 위부분에 분명하지는 않지만 6개 정도의 마디가 표현되어 있고 그 위쪽에 ‘此心連肺絲節’이 표기되어 있다(아래의 Table 3 참조).

#### 4) 五臟系(心系, 肺系, 脾系, 肝系, 腎系)와 胞絡(胞脈)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Fig. 1)는 모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의 오른쪽으로 휘어진 絲系 3개(脾系, 肝系, 腎系)로 이루어졌다. 다만 『鍼灸聚英』, 『鍼方六集』에는 3개의 絲系 중 脾系는 심장 본체로부터 돌출하고 肝系, 腎系는 원통형 막대 형태의 구조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臟腑證治圖說因鏡經』에는 모두 심장 본체에서 돌출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서적에서는 3개의 絲系가 모두 원통형 막대 구조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Fig. 2)에는 『和漢三才圖會』를 제외하고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로부터 오른쪽으로 갈라져 위로 뻗은 絲系 1개(肺系)와 왼쪽으로 갈라져 나온 絲系 1개(脾系)와 아래로 뻗은 絲系 2개(腎系, 肝系)가 묘사되어 있다. 왼쪽의 絲系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에는 脾系로 표기되었지만 『醫部全錄』에는 腎系로 표기되어 있다.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Fig. 3, Fig. 4)에는 『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와 마찬가지로 모두 상단에 여러 마디(대체로 9마디)가 있는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로부터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온 絲系 3개(脾系, 肝系, 腎系의 순서)가 묘사되어 있다. 특히 3개의 絲系는 『瘍醫大全』을 제외하고 모두 心臟 본체로부터 돌출된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瘍醫大全』에는 3개의 絲系 모두 원통형 막대 구조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Fig. 4)에는 상단에 6개의 마디가 있는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로부터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온 絲系 3개(腎, 胞絡, 肝의 순서)가 묘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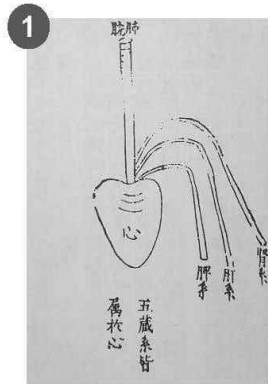
#### 5) 附記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Fig. 1) 10종 중 『鍼方六集』,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을 제외한 8종에 “五臟系皆屬於心”의 附記가 있는데 그 附記는 『鍼灸聚英』(1624)에 처음 실린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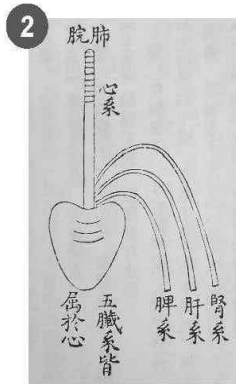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Fig. 2) 5종 중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에는 “五臟系皆屬於(于)心”의 附記가 있지만, 『和漢三才圖會』에는 그 附記가 없고 『醫部全錄』에는 “四臟皆系于心”의 附記가 적혀 있어 ‘五臟系’가 ‘四臟’으로, ‘屬’이 ‘系’로 고쳐져 있다.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 13종(Fig. 3, Fig. 4) 중 『類經圖翼』, 『經絡匯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醫宗金鑑』, 『傳悟靈濟錄』, 『經脈圖考』 등 8종에는 “四臟皆系於(于)心”의 附記가 있지만, 『(新編)鍼灸要法指南』,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 『經絡相法』에는 附記가 전혀 없고, 『瘍醫大全』에는 『鍼灸聚英』과 마찬가지로 “五臟系皆屬於心”의 附記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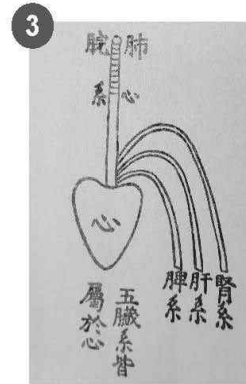
Fig. 1. Diagrams of heart affiliated to *ZhenJiuJuYing*(『鍼灸聚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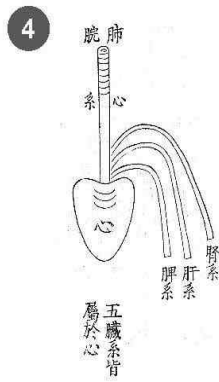
『鍼灸聚英』(1529)  
“心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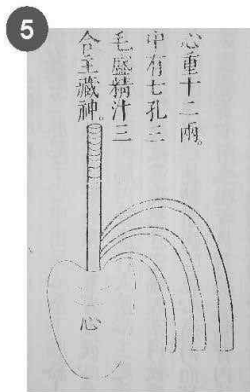
『古今醫統大全』(1556)  
“心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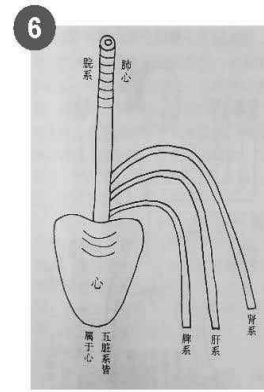
楊繼洲『鍼灸大成』(1601)  
“心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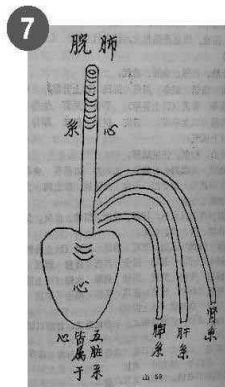
吳文炳『醫家赤熾益辨全書』(1605 丙午)  
“心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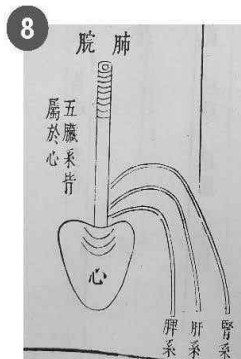
『鍼方六集』(1618)  
“心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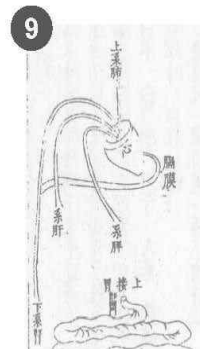
『頤生微論』(1618)  
“心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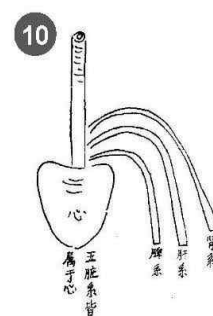
『福壽丹書』(1624)  
“心臟之圖”



『丹臺玉案』(1636)  
“心臟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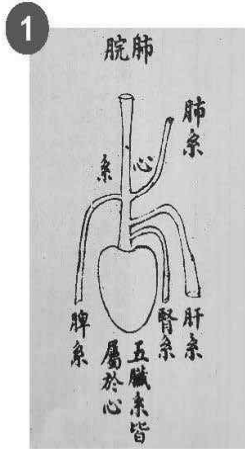


『臟腑證治圖說入鏡經』(1662)  
“心膽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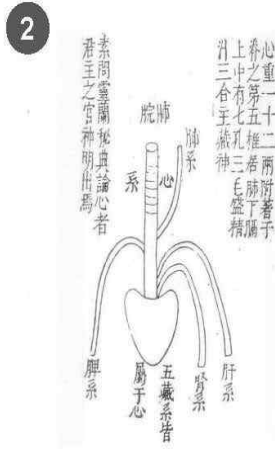


『身經通考』(清代)  
“心臟之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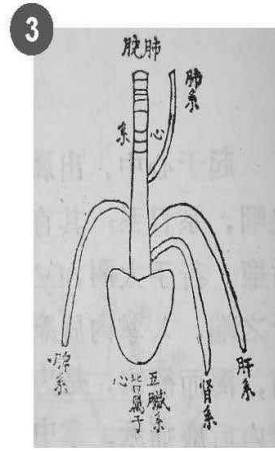
Fig. 2. Diagrams of heart affiliated to *LingShuZhuZhengFaWei*(『靈樞註證發微』)



『黃帝內經靈樞註證發微』(1580)  
“心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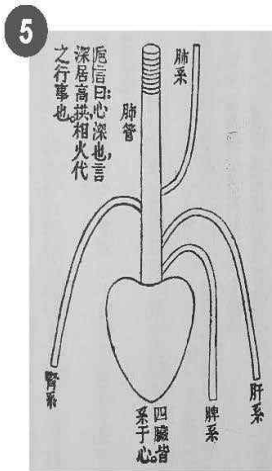
『三才圖會』(1607)  
“心圖”



『經絡考』(1609)  
“心經圖”



『和漢三才圖會』(1712)  
“心圖”



『醫部全錄』(1725)  
“心臟形象之圖”

Fig. 3. Diagrams(1/2) of heart affiliated to *LeiJingTuYi*(『類經圖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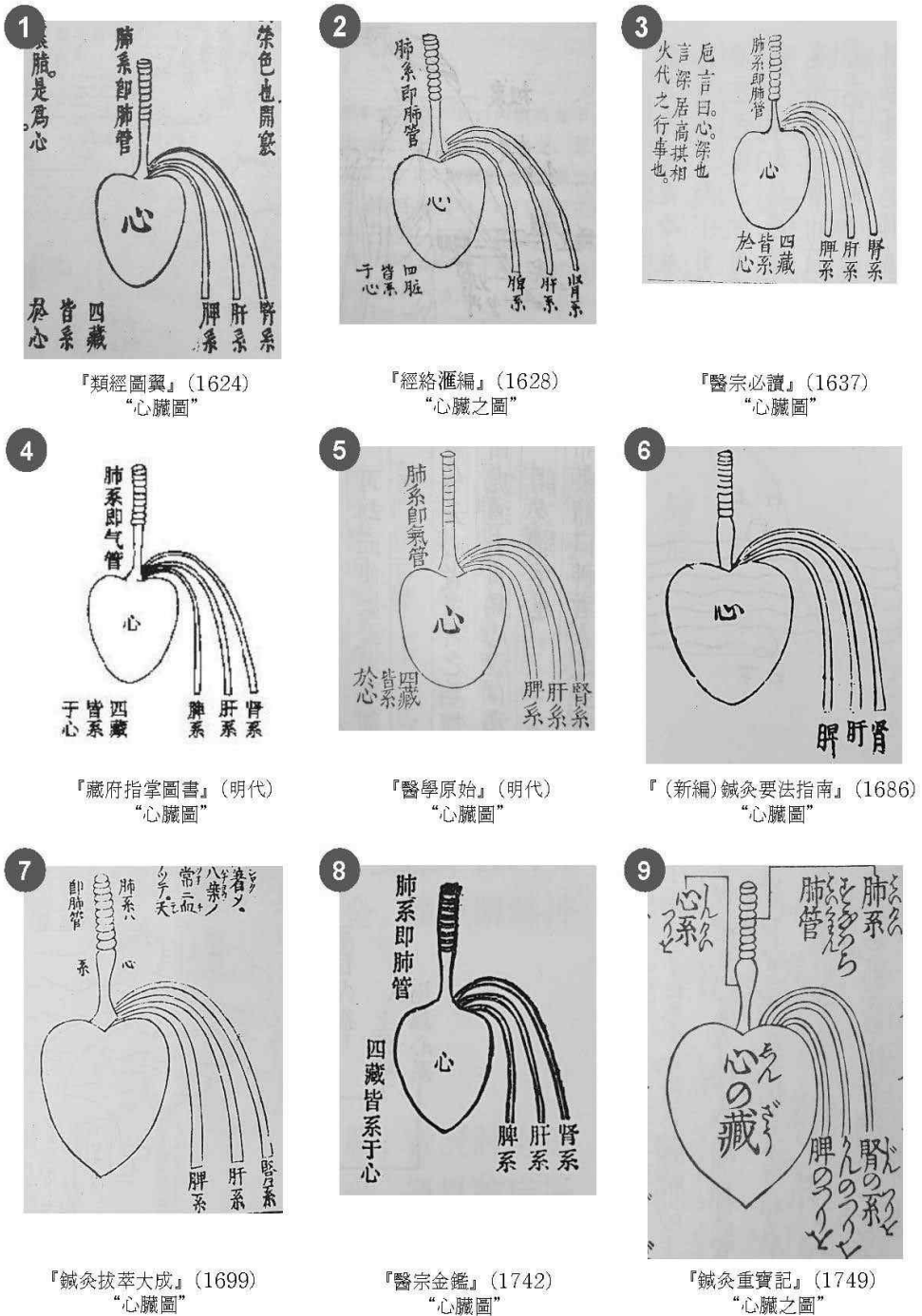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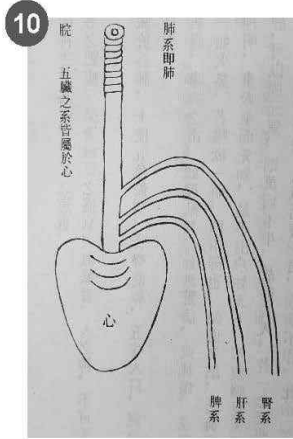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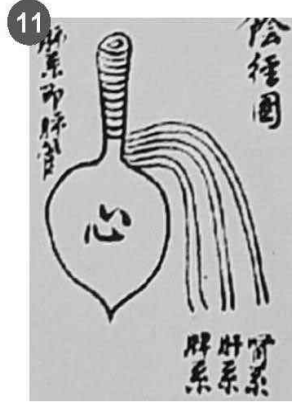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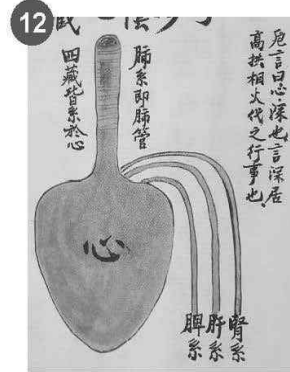
Fig. 4. Diagrams(2/2) of heart affiliated to *LeiJingTuYi*(『類經圖翼』) and diagram of heart in *ZhenJiuYuanShu*(『鍼灸原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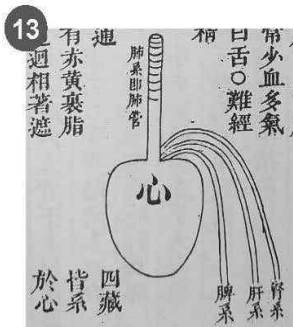
『瘍醫大全』(1760)  
“心臟圖”



『經絡相法』(清代)  
“心臟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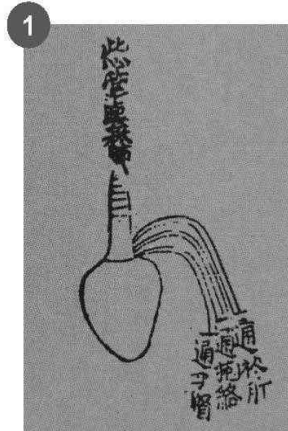


『傳悟靈濟錄』(1869)  
“心臟圖”



『經脈圖考』(1878)  
“心臟圖”

I.d.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



『鍼灸原樞』(1573)  
“心臟形象之圖”

또한 앞의 두 가지 附記 대신에 다른 내용이 실려 있는 경우도 있는데, 가령 『鍼方六集』, 『和漢三才圖會』에는 『難經四十二難』의 “心重十二兩, 中有七孔三毛, 盛精汁三合, 主藏神.”<sup>12)</sup>이 대신 실려 있고,

『三才圖會』에는 『難經』의 내용과 “『素問靈蘭秘典論』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이 함께 있고, 『醫部全錄』, 『醫宗必讀』, 『傳悟靈濟錄』에는 “凡言曰心者深也, 言深居高拱, 相火代之行事也.”의 附記가 실려

12)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

社. 2006. p.153.

있다.

마지막으로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Fig. 4)에는 ‘此心連肺絲節’의 附記가 있다.

#### 나. 계열에 따른 變異 - 계열간 交叉性

『鍼灸聚英』의 心臟圖는 내부의 곡선을 제외한 형태요소(심장 본체의 형태,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 脾系, 肝系, 腎系)가 『鍼灸原樞』계열과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와 대체로 동일하지만,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에는 별도로 肺系가 하나 더 있다. 『鍼灸聚英』계열 중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는 형태요소와 그림 구도가 나머지 28종과 동일하지 않다.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 중 『和漢三才圖會』의 心圖는 『鍼灸聚英』의 心臟圖와 흡사하고,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 중 『瘍醫大全』의 心臟圖는 『鍼灸聚英』의 心臟圖와 흡사하다.

“五臟系皆屬於心”의 附記는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 10종 중 『鍼方六集』,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을 제외한 8종과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 5종 중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와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 13종 중 『瘍醫大全』에 있다.

“四臟皆系於(于)心”의 附記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 중 『醫部全錄』과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 13종 중 『類經圖翼』, 『經絡匯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醫宗金鑑』, 『傳悟靈濟錄』, 『經脈圖考』등 8종에는 “四臟皆系於(于)心”의 附記가 있다.

이외에 “心重十二兩, 中有七孔三毛, 盛精汁三合, 主藏神.”의 附記와 “『素問靈蘭秘典論』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의 附記와 “『岳言曰心者深也, 言深居高拱, 相火代之行事也.”의 附記가 있는데, 3가지의 附記는 계열 사이에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 않는다.

위와 같이 형태요소를 기준으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서 동일계열의 공통점이 나타나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하나의 계열에서 다른 계열의 특징이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계열간 交叉性이 나

단만 까닭은 醫家들이 기존의 臟腑分圖를 模寫할 때 인용한 서적의 心臟圖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서적을 인용했기 때문임<sup>13)</sup>을 밝힌 바가 있다.

## 2. 현대 해부학과 비교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이 실제의 心臟과 유사 정도를 가늠하고자, 心臟 본체, 내부의 곡선, 상부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五臟系(心系, 肺系, 脾系, 肝系, 腎系)로 나누어 현대 육안 해부학과 비교하였다.

### 1) 心臟 본체의 형태

心臟圖에는 공통적으로 꼭지가 위에 있는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꼭지 부분의 함요(陷凹) 정도만 다를 뿐이다.

현대의 관점으로는 어른의 심장 모양은 비스듬히 거꾸로 세워진 세모꼴 피라미드 또는 원뿔모양으로 표현될 수 있다. 그러나 피라미드나 원뿔처럼 끝이 뾰족하거나 예리한 각이 있지 않으므로 모과(木瓜) 열매와 닮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반면에 어린이의 심장의 모양은 구형에 가깝다.

心臟圖에 표현된 心臟 본체의 형태가 무엇을 본떠 묘사된 것인지는 아래(3. 문헌과 비교)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2) 心臟 내부의 곡선

『鍼灸聚英』계열 중 『鍼灸大成』,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을 제외한 모든 心臟圖와 『類經圖翼』계열 중 『瘍醫大全』의 心臟圖에는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이 표현되어 있지만, 『鍼灸聚英』계열 중 『鍼灸大成』과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과 『類經圖翼』계열의 대부분과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에는 심장 내부에 아무런 선이 표현되어 있지 않다.

특히 『鍼灸聚英』계열 중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에는 심장의 상단에 두 줄의 선이 가로질러서 마치 하나의 등근 고리처럼 표현되어 있다.

대부분의 心臟圖 중 심장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은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 심장 내부의 단면을 표

13)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의학학회지. 2016. 29(1). p.23.

현한 것일까? 아니면 심장 외부를 감싸고 있는 것을 표현한 것일까?

현대 육안해부학에 의하면, 심장은 두 겹으로 이루어진 심낭막에 싸여있고, 심장의 표면으로는 심장 근육에 혈액을 순환시키는 심장혈관이 있다. 심장은 크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오른쪽과 왼쪽에는 각각 심방과 심실이 있고(총 4개의 방), 각 부분 사이에는 판막이 있다<sup>14)</sup>. 그러나 심장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과 유사한 해부학적 구조물을 현재로서는 찾을 수 없다.

心臟圖에 표현된 심장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의 실체가 무엇인지는 아래(3. 문헌과 비교)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 3) 心臟 위쪽의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서 심장 본체 위쪽 중앙의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은 대체로 9개의 마디가 표시된 상부와 마디가 없는 하부로 구분될 수 있다.

상부, 하부가 각각 무엇에 속하는가에 대한 관점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상부는 肺에 속하지만 하부는 心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한 관점(『古今醫統大全』, 『鍼灸大成』, 『醫家赤鍼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 『鍼灸原樞』 등에 실린 心臟圖)이 있다(아래의 Table 3 참조).

둘째 상부와 하부 모두 肺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한 관점(『鍼灸聚英』, 『鍼方六集』, 『丹臺玉案』, 『和漢三才圖會』, 『醫部全錄』, 『類經圖翼』, 『經絡匯編』, 『醫宗必讀』,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 『(新編)鍼灸要法指南』, 『醫宗金鑑』, 『瘍醫大全』,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脈圖考』에 실린 心臟圖)이 있다(아래의 Table 3 참조).

현대 육안해부학에 의하면, 심장의 뒤쪽으로 위

쪽에 상대정맥과 아래쪽에 하대정맥이 뻗어 나오고 있는데, 그 중 상대정맥(또는 대동맥)의 뒤쪽으로 폐로 이어지는 좌측기관지가 지나가고 있으며, 좌측기관지는 좌측의 폐와 우측의 폐 사이로 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서 心臟 위쪽의 구조물 중 ‘상부’는 대체로 9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肺臟圖에도 이와 흡사한 구조물이 있다는 점<sup>15)</sup>으로 볼 때 ‘기관(trachea)’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구조물의 ‘하부’는 심장에 속하거나 폐에 속하는 두 가지 관점이 존재하므로, 심장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심장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상대정맥(또는 대동맥)’을 묘사한 것이지만, 폐에 속한다고 보는 경우에는 肺로 이어지는 ‘좌측기관지’를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4) 心臟 위쪽의 구조물이 아닌 또 다른 肺系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에는 『和漢三才圖會』를 제외하고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肺院)로부터 오른쪽으로 갈라져 위로 뻗은 絲系 1개(肺系)가 묘사되어 있어서 결과적으로 肺에 속한 구조물이 2개가 된다. 특히 ‘肺院’과 ‘肺系’를 동일시하지 않았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대 육안해부학과 비교해 볼 때, 이 구조물은 심장의 상부에서 肺로 이어지는 폐동맥(pulmonary artery) 또는 폐정맥(pulmonary vein)을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5) 五臟系 중 脾系, 肝系, 腎系 등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단 『和漢三才圖會』는 예외)을 제외하고 우측으로 뻗은 3개의 絲系가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이 3개의 絲系는 『鍼灸原樞』를 제외하고 脾系, 肝系, 腎系라고 표시되어 있고, 『鍼灸原樞』에는 脾系 대신 ‘通胞絡’으로 표시되어 있다.

반면에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단 『和漢三』

14) 네이버 지식백과(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서울대학교병원). [cited at 3rd February, 2017].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616&cid=51006&categoryId=51006>

15)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의학회지. 2016. 29(1). pp.11-31.

才圖會』는 예외)에는 좌측으로 1개의 絲系와 우측으로 3개의 絲系가 묘사되어 있다. 우측 3개의 絲系는 위로는 肺系가, 아래로는 肝系와 腎系가 있다.

현대 육안해부학과 비교해 볼 때, 하대정맥이 心으로부터 오른쪽으로 치우쳐 횡격막을 관통하여 肝과 연결되므로 肝系에 해당될 수 있지만<sup>16)</sup>, 心臟에서 갈라져 나오는 혈관을 비롯한 나머지 구조물은 心臟圖의 묘사처럼 脾, 腎, 子宮 등과 직접적으로 이어진 것이 없다.

이처럼 心臟과 나머지 四臟을 연결하는 五臟系가 해부학적 구조물과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도록 묘사된 이유에 대해 “五臟系는 한의학에서 인체 구조에 대한 해부 관찰을 바탕으로 五臟 사이의 기능 관계뿐만 아니라 나아가 氣血 및 津液의 생성, 순환을 설명하고자 시도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점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sup>17)</sup>고 하여 한의학적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설명한 바가 있다.

그런데 추가로 지적할 점은, 心臟圖를 남긴 醫家들은 心臟을 인체의 중심, 특히 五臟의 중심으로 인식하였기에 心臟을 나머지 四臟과 絲系를 통해 연결하려 했기 때문에 五臟系가 해부학적 구조물과 부분적으로만(예를 들어 血管) 일치하게 된 것이며, 또한 그들도 絲系가 곧 血脈이라고 인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심장을 인체의 중심으로 여긴 근거는 일찍이 『素問靈蘭秘典論』의 “心이 君主의 소임”<sup>18)</sup>에서 찾을 수 있고, 이런 관점들은 心臟圖와 臟腑總圖 등에 점차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素問』의 해당 내용을 張介賓<sup>19)</sup>을 비롯한 여러 醫家들이나 현대 한의학에서도 여전히 심혈관계통의 역할이라고 인식

하지 않고 있다.

반면에 『華陀玄門內照圖』에서는 心이 五臟과 연결된 五臟系에 대해 “心系는 五臟系와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血氣를 운행하고 骨髓로 스며든다. 그러므로 五臟에 병이 있으면 가장 먼저 心臟을 범한다.”<sup>20)</sup>라고 설명하였는데, 心은 五臟系를 통해 血氣를 순환하고 骨髓와 같이 몸속 깊은 부위까지 血氣를 공급한다고 인식하였다. 이런 관점은 心과 연결된 五臟系를 심혈관계통으로 인식한 것이다.

### 3. 문헌과 비교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에 대해 형태 요소와 附記로 나누어 그 變異를 분석한 결과, 그것이 현대 해부학의 지식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도 있지만, 크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적지 않음을 앞서 지적하였다.

또한 心臟圖 29종은 대체로 『金蘭循經』으로부터 4가지 계통으로 갈라져 직접, 간접적으로 인용되었지만, 심장 본체, 내부의 곡선, 心臟 위쪽의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五臟系(心系, 肺系, 脾系, 肝系, 腎系)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는 계열의 공통점을 따르거나 또는 따르지 않았음도 이미 지적하였다.

이처럼 心臟圖 29종을 그린 醫家나 畫工이 당시에 해부했다는 史料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자면, 그들이 심장을 직접 관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鍼灸聚英』의 心臟圖를 인용할 때 變形하여 표현한 근거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心臟圖 29종에 나타난 심장 본체, 내부의 곡선, 心臟 위쪽의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五臟系(心系, 肺系, 脾系, 肝系, 腎系), 胞脈 등의 형태인자와 附記에 대해 『素問』, 『難經』, 『華陀玄門內照圖』,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十四經發揮』 등과 서로 비교함으로써, 문헌이 心臟圖의 變異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16) 丁赫相 외 5인. 『醫學入門』 五臟系에 대한 解剖學的 考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30(1). p.176.

17) 丁赫相 외 5인. 『醫學入門』 五臟系에 대한 解剖學的 考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30(1). p.181.

1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34.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

19)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중).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6. 張介賓은 “心의 아래 3개의 系는 脾, 肝, 腎과 이어져 있으므로 心은 五臟의 氣와 통해서 그 주가 된다.”고 하였는데, 心은 五臟의 ‘氣’와 통한다고 하였지 ‘혈’과 통한다고 하지 않았다.

20)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34. “心之系與五臟之系相連, 輸其血氣, 滲灌骨髓, 故五臟有病, 先干於心.”

1) 心臟 본체의 형태

『素問』이나 『靈樞』에는 심장의 형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가, 王冰이 『素問五運行大論』을 注釋하면서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762)에서 “심장의 형태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과 같되 가운데에 9개의 구멍이 있다.”<sup>21)</sup>고 처음 설명하였고, 그 후 滑壽는 『十四經發揮』(1341)에서 “심장의 형태는 피어나지 않은 연꽃과 같되 肺의 아래와 횡격막의 위에 있으며 척추의 제5椎에 부착되어 있다.”<sup>22)</sup>고 하여 王冰의 설명을 따랐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心臟圖에 묘사된 심장 본체를 꼭지가 위에 있는 길쭉한 사과모양 또는 모과열매 등으로 묘사하였지만, 王冰의 注釋을 고려하면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을 형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특히 『類經圖翼』계열의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經絡相法』에서는 심장의 하단을 다른 그림에 비해 뾰족하게 묘사하였는데 이는 王冰의 注釋의 영향을 받아 피지 않은 연꽃을 본떠 그렸음을 추측하게 한다.

2) 내부의 곡선

明堂臟腑圖 중 『鍼灸聚英』계통의 서적은 공통적으로 心包圖를 신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難經二十五難』의 “心主與三焦爲表裏, 俱有名而無形.”<sup>23)</sup>에 근거하여 心包를 無形의 臟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에 반해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과 『類經圖翼』계열에서는 공통적으로 心包圖를 남겼다.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心包를 有形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鍼灸聚英』계통의 서적에서 모두 心包圖를 신지 않고 있으며 그 이유가 心包를 無形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라면,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을 제외한 『鍼灸聚英』계통의 서적에서 心臟 내부에 3개의 짧은 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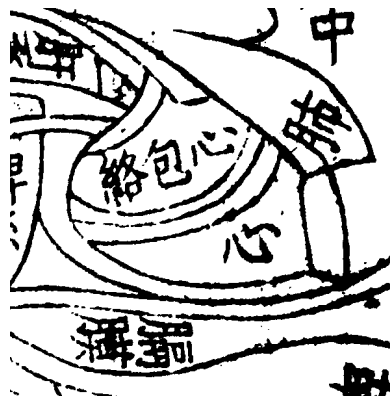
선은 무엇을 나타낸 것일까? 그 실체에 대해 아래와 같이 2가지 관점으로 추측할 수 있다.

(1) 心包로 인식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에 심장의 상단에 심장을 가로지르는 두 줄의 곡선(고리 형태)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心臟의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물이라는 점에 근거하면 心包를 묘사한 듯하다. 心包는 대체로 근대 한의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현대 해부학 구조물 중 심낭에 해당<sup>24)</sup>된다고 인식되고 있다.

『醫學入門』에 실린 臟腑圖에서 표현된 心의 형상<sup>25)</sup>을 확대하여 살펴보면(Fig. 5 참고), 心臟의 중간 부위를 가로지르는 세 줄의 곡선이 표현되어 있는데, 이는 『臟腑證治圖說因鏡經』의 心小腸圖에서 심장의 상단에 중간 부위 전체를 가로지르는 두 줄의 곡선과 유사하다. 『醫學入門』에서는 이를 ‘心包絡’으로 표기하였다. 다만 곡선의 개수가 서로 다르다.

Fig. 5. Heart of Zangfutu in YiXueRunMen



그렇다면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모든 心臟圖와 『類經圖翼』계열의 대부분(『瘍醫大全』 제외)과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에는 심장 내부에 아무런

21)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313. “心形如未敷蓮花, 中有九孔, 以導引天真之氣, 神之宇也.”  
 22) 滑壽. 十四經發揮(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6. “心形如未敷蓮花, 居肺下膈上, 附著于脊之第五椎.”  
 23)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45.

24)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成輔社. 1990. p.164. “心包는 心包絡이라고도 하며, 심장 외면을 둘러싸고 있는 包膜이다.”  
 25)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p.27.

선이 표현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도 그 心臟圖에서는 心包를 배제하고 심장만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 『鍼灸聚英』계열 중 『鍼灸大成』도 이를 따랐다.

滑壽는 『十四經發揮』(1341)에서 “心包는 심장 아래와 횡격막의 위에 있다. 횡격막으로 드리워져서 횡격막과 서로 붙어 있으면서 누런 기름으로 질펀하게 싸여 있는 것은 심장이자. 그 질펀한 기름의 바깥쪽에 실처럼 가는 筋膜이 있어서 심장과 폐와 서로 이어진 것은 心包이다.”<sup>26)</sup>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현재까지 알려진 서적 중에서 心包의 형상에 대한 최초의 기록인 듯하다.

그런데 滑壽가 『十四經發揮』에서는 心包의 형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했지만, 『難經本義』 「二十五難」 27)에서는 心包가 형체가 없다는 『難經』의 학설에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따라서 滑壽가 心包 無形說을 지지하였는지, 心包 有形說을 지지하였는지 판단하기 곤란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十四經發揮』의 내용은 『黃帝內經注證發微』에서 처음으로 心包圖를 그릴 때 그 근거가 되었을 것이며, 그 心包圖는 나중에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과 『類經圖翼』계열의 그림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2) 三毛로 인식

『鍼方六集』에서 심장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을 묘사하는 동시에 “心臟 가운데에 七孔三毛가 있다.”<sup>28)</sup>는 『難經四十二難』의 내용을 附記하고 있는데 『和漢三才圖會』에도 마찬가지로 그 附記가 실려 있다.

『鍼方六集』은 心包圖를 신지 않은 『鍼灸聚英』계열에 속하므로 心包를 無形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과 『難經』의 ‘七孔三毛’의 학설을 인용하였다는 점으로부터 추측하면, 『鍼方六集』의 心臟

圖에서는 심장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을 ‘三毛’로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에 속하는 『和漢三才圖會』에도 『難經四十二難』의 내용을 附記하고 있지만 3개의 짧은 곡선을 묘사하지 않았으므로 『和漢三才圖會』의 心臟圖에서는 3개의 짧은 곡선을 ‘三毛’로 인식했을 가능성은 낮다.

이와 같이 『難經』의 心臟의 ‘七孔三毛’ 학설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 거의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3개의 짧은 곡선을 ‘三毛’로 인식한 관점은 일반적이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 3) 心臟 위쪽의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는 심장 본체 위쪽 중앙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 1개가 공통적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대체로 다시 2개의 구조로 구분할 수 있다. 즉 9개 내외의 마디로 이루어진 상부와 아무런 마디가 표시되지 않은 하부가 있다. 특히 9개 내외의 마디로 이루어진 상부는 肺臟圖에도 대체로 공통적으로 나타나 있다.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 중 일부 서적(『醫家赤帙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丹臺玉案』, 『身經通考』, 『醫宗金鑑』, 『瘍醫大全』,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등 9종) 상부의 최상단에는 구멍이 있다.

心臟圖의 상부구조물의 형태가 29종마다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지 Table 3과 같이 정리하였는데, 心臟圖의 내용이 肺臟圖와 다른 경우 Table 3에 음영으로 표시하고, 그림에 개수가 정확히 표현되지 않은 경우 숫자 뒤에 ‘(?)’로 표시하였다.

그런데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에 묘사된 心臟 위쪽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의 구조물(마디가 표시된 상부+마디가 없는 하부) 전체를 심장의 부속물로 여겼을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 구조물 중 상부와 하부는 그 소속이 각각 다르거나 동일하다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9개 내외의 마디가 있는 상부인 肺系(肺臟, 肺管으로도 표기됨)와 하부인 心系로 이루어진 이질적인 결합체라는 관점이며, 다른 하나는

26) 滑壽. 十四經發揮(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92. “心包, 一名手心主, 以藏象校之, 在心下橫膜之上, 豎膜之下, 與橫膜相粘, 而黃脂漫裹者, 心也. 其漫脂之外, 有細筋膜如絲, 與心肺相連者, 心包也.”

27)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45.

28)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3.

Table 3. Comparison of upper structure in 29 diagrams of heart

서적	상부구조물				구명 개수
	상부			하부	
『鍼灸聚英』계통	명칭	마디 수(附記)	마디 수(그림)	명칭	
鍼灸聚英	肺腕	-	8(?)	-	0
古今醫統大全	肺腕	-	9	心系	0
鍼灸大成	肺腕	-	9	心系	0
醫家赤帙益辨全書	肺腕	-	7	心系	1
鍼方六集	-	-	8(?)	-	0
頤生微論	肺腕	-	7	心系	1
福壽丹書	肺腕	-	9	心系	1
丹臺玉案	肺腕	-	8	-	1
臟腑證治圖說人鏡經	-	-	-	-	0
身經通考	-	-	7	-	1
『靈樞註證發微』계통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肺腕	-	-	心系	0
三才圖會	肺腕	-	7	心系	0
經絡考	肺腕	-	8	心系	0
和漢三才圖會	肺系	-	9	肺管	0
醫部全錄	-	-	8	肺管	0
『類經圖翼』계통					
類經圖翼	肺系=肺管	-	9	-	0
經絡匯編	肺系=肺管	-	9	-	0
醫宗必讀	肺系=肺管	-	9	-	0
藏府指掌圖書	肺系=氣管	-	9	-	0
醫學原始	肺系=氣管	-	9	-	0
(新編)鍼灸要法指南	-	-	10	-	0
鍼灸拔萃大成	肺系=肺管	-	9	心系	0
醫宗金鑑	肺系=肺管	-	7	-	1(?)
鍼灸重寶記	肺系=肺管	-	9	心系	0
瘍醫大全	肺系=肺腕	-	8	-	1
經絡相法	肺系=肺管	-	10	-	1
傳悟靈濟錄	肺系=肺管	-	-	-	1
經脈圖考	肺系=肺管	-	9	-	0
『鍼灸原樞』계통					
鍼灸原樞	此心連肺 絲節	-	6	-	1(?)

이 구조물 전체가 肺系(肺腕, 肺管, 氣管으로도 표기됨)라는 관점이다.

『鍼灸聚英』계열 心臟圖 중 『古今醫統大全』, 『鍼灸大成』, 『醫家赤帙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에서 모두 이 구조물의 상단에 ‘肺腕’이 표기되어 있고 이 구조물의 하단에 ‘心系’가 함께 표기되

어 있으며,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 心臟圖 중에서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에는 이 구조물의 상단에 ‘肺腕’이 표시되어 있고 9개 정도의 마디 중간 부위에 ‘心系’가 표기되어 있으며, 『類經圖翼』계열 心臟圖 중에서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에는 이 구조물 하부의 옆에는 ‘肺

系卽肺管'이 표기되고 있고 9개 마디의 아래에는 '心系'가 표기되어 있다. 특히 『鍼灸重寶記』에는 9개 마디에 지시선을 표시하여 '肺系卽肺管'을 표기하였고, 그 아래로부터 심장까지 이어진 絲系에 지시선을 표시하여 '心系'임을 표기하였다(Table 3 참조).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에는 이 구조물의 상단에 '此心連肺絲節'이 표기되어 있는데 『鍼灸原樞』의 저자는 이 구조물이 心에 속하지만 肺와 연결된 것으로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이런 心臟圖가 실린 서적 29종 중 11종에서는 이 구조물 중 상부는 肺에 속하는 동시에 하부는 心에 동시에 속한 이질적인 결합체라고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그에 반해 이 구조물의 상단에 『鍼灸聚英』계열 心臟圖 중에서 『鍼灸聚英』, 『丹臺玉案』에는 '肺腕'이 표기되어 있고 『臟腑證治圖說因鏡經』에는 '上系肺'가 표기되어 있으며,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 心臟圖 중에서 『和漢三才圖會』에는 '肺系'와 '肺管'이 상하로 나란히 표기되어 있고, 『醫部全錄』에는 '肺管'이 표기되어 있으며, 『類經圖翼』계열 心臟圖 중에서 『類經圖翼』, 『經絡匯編』, 『醫宗必讀』,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經絡相法』, 『傳悟靈濟錄』, 『經絡圖考』에는 '肺系卽肺管'이 표기되어 있고, 『藏府指掌圖書』, 『醫學原始』에는 '肺系卽氣管'이 표기되어 있고, 『瘍醫大全』에는 '肺系卽肺腕'이 표기되어 있다. 그렇지만 이런 心臟圖 내에는 '心系'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위와 같이 이런 心臟圖가 실린 서적 29종 중 17종(『臟腑證治圖說因鏡經』에는 이 구조물이 없음)에서는 이 구조물 전체가 肺에 속한 것이고 心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여겼음을 추측할 수 있다.

요약하자면, 심장 본체 상단의 중앙에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의 구조물의 실체에 대한 관점은 첫째로는 상부에 肺系(肺腕, 肺管으로도 표기됨)와 하부에 心系の 결합체라고 여긴 것과 둘째로는 肺系(肺腕, 肺管, 氣管으로도 표기됨) 자체로 여긴 것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의 차이로 인해 五臟系 중 '心系'의 실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도 두 가지로 구분

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두 가지 관점 중 첫째 관점을 따르면 心系는 나머지 四臟의 絲系(肺系, 脾系, 肝系, 腎系)와 별도로 존재하여 五臟系는 결국 5개가 되지만, 둘째의 관점을 따르면 心系가 곧 四臟의 絲系(肺系, 脾系, 肝系, 腎系)이어서 별도로 존재하지 않아 五臟系는 결국 4개가 된다.

『鍼灸聚英』(1529)에서는 애초에 '心系'의 언급이 없다가 『古今醫統大全』(1590)에 와서 비로소 '心系'를 언급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추측하면, 『鍼灸聚英』 이전에는 나머지 四臟과 연결된 心系 외에 독립적인 心系の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처럼 心에 속하지 않는 구조물을 心臟圖에서 표현한 까닭은 무엇일까? 아마도 『鍼灸聚英』에서 처음 心臟圖를 수록할 때, 心과 肺의 밀접한 관련은 心系와 肺系の 결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나타내기 위해 肺에 속하는 9개의 마디의 구조물을 그린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鍼灸聚英』이후 많은 醫家들이 '心은 五臟과 서로 通한다.'는 관점을 지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남긴 心臟圖에서도 心臟과 이어진 五臟系를 그리는 과정에서 心臟과 가장 가까운 肺系(肺에 속하는 여러 마디의 구조물)를 제거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특히 『黃帝內經注證發微』, 『臟腑證治圖說因鏡經』, 『傳悟靈濟錄』에는 마디가 아예 묘사되어 있지 않는데 그 이유는 心臟圖이므로 肺系에 대한 묘사를 생략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 4) 心系

心臟이 나머지 四臟과 각각 絲系로 연결된다면, 그 4개의 絲系는 四臟의 絲系인 동시에 모두 心系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중에서 『古今醫統大全』, 『鍼灸大成』, 『醫家赤輶益辨全書』, 『頤生微論』, 『福壽丹書』,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 『鍼灸拔萃大成』, 『鍼灸重寶記』 등에서는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의 하부를 4개의 絲系와 별도로 독립적인 '心系'를 표시하였다.

心系에 대해 일찍이 『靈樞經脈』에서 "手少陰心脈은 심장의 가운데에서 起始하고 나와서 心系에 속하

고 횡격막을 내려가서 小腸과 연락된다. 그 支脈은 心系로부터 올라가서 목구멍을 끼고 目系를 엮는다. 그 直脈은 다시 心系로부터 물러나서 肺로 올라갔다 내려가서 겨드랑이 아래로 나와서 ...”<sup>29)</sup>라고 설명하였는데, 心系는 심장의 가운데에서 나오며 肺와 이어진다고 인식한 것이다.

한편 肝系에 대해 『靈樞論勇』에서 “겹약한 사람은 눈이 크지만 작아지지 않으며 陰陽을 서로 잃으며 그 三焦腠理가 늘어지며 울대뼈[鬲肝]가 짧고 작으며 肝系가 늘어지며 그 膽이 가득하지 않아서 늘어지며 ...”<sup>30)</sup>라고 하였는데, 여기에서의 肝系는 肝으로부터 뻗어 나온 絲系이지만 그 肝系가 心臟에 연결되어 있는지는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다.

『華陀玄門內照圖』(1273)에서 “그 (心의) 絲系는 위로 肺와 매어져 있는데, 그 나뉜 것은 肺의 두 葉의 가운데로부터 뒤로 향하여 척추와 통해진 것은 腎(과 이어져 있는 것)이며 ...”<sup>31)</sup>이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내용을 가감 없이 『醫學入門』(1575)에서 인용하였다<sup>32)</sup>. 이 내용에 따르면 心系는 肺와 이어진 絲系와 나뉘어 결국 腎과 이어진 絲系(즉 別者)의 2개가 있다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다.

그 후로 滑壽는 『十四經發揮』(1341)에서 “心系는 두 개가 있다. 하나는 위로 肺와 서로 통하는데 肺의 두 葉의 사이로 들어가며, 다른 하나는 구불구불 꺾여서 뒤로 향하여 척추와 등뼈와 나란히 내려가면서 經絡이 서로 연결되어 ...”<sup>33)</sup>라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華陀玄門內照圖』의 내용을 약간 수정, 보충한

셈이다.

이로써 『靈樞』에서 본래 肝系를 제외하고는 心臟과 나머지 四臟이 직접 이어진 系는 있지 않았는데, 『華陀玄門內照圖』, 『十四經發揮』에 이르러 心臟을 제외한 四臟에 각각 1개의 系가 있지만 오직 心臟에는 2개의 系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 肺와 통하는 心系 외에 별도로 척추를 통해 腎과 이어진 心系가 있으므로 心臟은 나머지 四臟과 달리 2개의 系를 가지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鍼灸聚英』(1529)의 心臟圖에서 “五臟系는 心과 통하고 心은 五臟系와 통한다.”는 附記가 등장한 뒤로 五臟系의 개수가 4개인지, 5개인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되었다.

張介賓은 『類經圖翼』(1624)에서 五臟系가 心이 서로 통한다면 서로 연락되는 絲系가 5개일 수 없다는 점을 깨닫고 附記의 내용 중 ‘五臟’을 ‘四臟’으로 수정하였다. 또한 『類經經絡類』에서 “心은 다섯 번째 흉주의 아래에 해당되는데, 그 系가 5개가 있어서 心의 위로 系가 肺와 이어져 있고 肺에서 아래로 心과 이어져 있으며, 心의 아래 3개의 系는 脾, 肝, 腎과 이어져 있으므로 心은 五臟의 氣와 통해서 그 主가 된다.”<sup>34)</sup>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類經圖翼』의 心臟圖에 표현된 五臟系의 개수(4개) 및 附記의 내용과 일치한다.

뿐만 아니라, 張介賓은 『類經經絡類』에서 『華陀玄門內照圖』, 『十四經發揮』에서 心系가 2개가 있다는 근거로 삼은 『靈樞經脈』의 “其直者, 復從心系却上肺, 下出腋下 ...”에 대해 “直脈은 心經의 正脈이다. 이는 앞의 心系로부터 다시 肺로 올라가서 ...”<sup>35)</sup>라고 注釋하였는데, 이로써 張介賓은 『華陀玄門內照圖』, 『十四經發揮』와 달리 心系가 2개라는 인식에 동의하지 않았음을 또 알 수 있다.

2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80. “心手少陰之脈, 起於心中, 出屬心系, 下膈, 絡小腸. 其支者, 從心系, 上挾咽, 繫目系. 其直者, 復從心系却上肺, 下出腋下 ...”

30)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3. “怯土者, 目大而不可減, 陰陽相失, 其焦理縱, 鬲肝短而小, 肝系緩, 其膽不滿而縱 ...”

31)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p.33. “其系上系於肺, 其別者自肺兩葉之中, 向後通脊者腎, ...”

32) 李樅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34.

33) 滑壽. 十四經發揮(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86. “心系有二. 一則上與肺相通, 而入肺兩大葉之間, 一則曲折向後, 并脊脊, 經絡相連, 貫脊髓, 而與腎相通, 正當七節之間.”

34)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6. “心當五椎之下, 其系有五, 上系連肺, 肺下系心, 心下三系連脾肝腎, 故心通五臟之氣而爲之主也.”

35)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126. “直者, 經之正脈也. 此自前心系復上肺, ...”

### 5) 기타 五臟系(肝系, 脾系, 腎系)와 胞脈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단 『和漢三才圖會』는 예외)을 제외하고 우측으로 뻗은 3개의 絲系가 공통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그 絲系가 갈라져 나온 부위가 다르다. 가령 『鍼灸聚英』, 『鍼方六集』에는 3개의 絲系 중 脾系는 심장 본체로부터 나오고 肝系, 腎系는 원통형 막대 형태의 구조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臟腑證治圖說因鏡經』에는 모두 심장 본체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고, 나머지 서적에서는 3개의 絲系가 모두 원통형 막대 구조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반면에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단 『和漢三才圖會』는 예외)에는 좌측으로 1개의 絲系와 우측으로 3개의 絲系가 묘사되어 있는데,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처럼 생긴 구조물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왼쪽으로 휘어진 絲系 1개(脾系)와 오른쪽으로 갈라져 위로 뻗은 絲系 1개(肺系)와 아래로 뻗은 絲系 2개(腎系, 肝系)가 묘사되어 있다. 왼쪽의 絲系는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 『三才圖會』, 『經絡考』에는 脾系로 표기되었지만 『醫部全錄』에는 腎系로 표기되어 있다.

『類經圖翼』계열의 心臟圖에는 『鍼灸聚英』계열의 心臟圖와 마찬가지로 그 상단에 대체로 9개의 마디가 있는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로부터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온 絲系 3개(脾系, 肝系, 腎系의 순서)가 묘사되어 있다. 특히 3개의 絲系는 『瘍醫大全』을 제외하고 모두 心臟 본체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瘍醫大全』에는 3개의 絲系 모두 원통형 막대 구조물로부터 갈라져 나온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鍼灸原樞』계열의 心臟圖에는 상단에 여러 마디가 있는 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 형태로부터 갈라져 나와서 오른쪽으로 휘어져 腎, 胞絡, 肝으로 통한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서 胞絡은 心包絡이 아니라 子宮을 가리키며<sup>36)</sup>, 心과 胞絡이 이어진 絲

系는 ‘胞脈’으로 불린다.

『鍼灸原樞』의 心臟圖에서 표현된 胞絡으로 이어지는 絲系는 『素問評熱病論』의 “胞脈이 心에 속하여 胞中에 連絡되어 있다.”<sup>37)</sup>는 문구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이와 별도로 『素問奇病論』에서 “胞絡은 腎과 이어져 있다.”<sup>38)</sup>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心臟과 이어진 기타 五臟系(肝系, 脾系, 腎系)가 갈라져 나온 위치가 그림마다 일치하지 않는 점과 脾臟과 이어진 脾系 대신 胞絡과 이어진 구조물로 표현하는 등의 變異가 발생한 점은 실제 해부를 통해 정확히 관찰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心이 나머지 四臟과 絲系로 이어져 있다는 개념은 언제 발생한 것일까?

일찍이 『靈樞經脈』에 手少陰心脈과 이어진 脾系, 肝系, 腎系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만 『靈樞論勇』<sup>39)</sup>에서의 肝系를 언급하였지만, 여기에서의 肝系는 肝으로부터 뻗어 나온 絲系를 가리키며, 그것이 心臟과 연결된 肝系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五臟系와 心의 관계에 대한 기술인 “五臟系通於心, 心通五臟系.”라는 『鍼灸聚英』의 附記에 대한 근거는 기존에 밝혀진 바가 없는데, 지금까지의 연구를 통해 판단해보면 아마도 『華陀玄門內照圖』(1273)의 心氣圖에 실린 “五臟系는 心과 통하며 心은 五臟系와 통한다.”<sup>40)</sup>는 문구가 최초의 기록인 듯하다.

『華陀玄門內照圖』에서 心이 五臟과 絲系로 통해져 있는 의의에 대해 “心系는 五臟系와 서로 이어져 있는데, 그 血氣를 운행하고 骨髓로 스며든다. 그러므로 五臟에 병이 있으면 가장 먼저 心臟을 범한다.”<sup>41)</sup>라고 설명하였는데, 이 내용을 가감 없이

36)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p.32.

37)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24. “胞脈者, 屬心而絡於胞中.”

38)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176. “胞絡者, 繫於腎.”

39)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p.233. “怯土者, 目大而不可減, 陰陽相失, 其焦理縱, 鬲肝短而小, 肝系緩, 其膽不滿而縱 …”

40)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p.32. “五臟系通於心, 心通五臟系.”

41)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

『醫學入門』에서 인용하였다<sup>42)</sup>. 다시 말하면 心은 4개의 絲系를 통해 肝, 脾, 肺, 腎과 연결되어 있는데, 그 絲系는 心臟으로부터 四臟으로 血氣를 순환시킬 뿐만 아니라 骨髓와 같이 몸속 깊은 부위까지 血氣를 공급한다고 인식한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華陀玄門內照圖』에서 心臟을 중심으로 나머지 四臟을 絲系로 연결한 묘사는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을 君主로서 인체의 중심이라는 관점이 반영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지만, 『華陀玄門內照圖』에서 心臟이 五臟系를 통해 氣와 血을 전신으로 순환한다고 인식한 점은 『素問靈蘭秘典論』에서 心이 나머지 四臟의 情志를 통솔한다는 인식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

### 6) 附記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의 附記는 앞서 언급한 “五臟系皆屬於心”, “四臟皆系於(于)心” 외에 “心重十二兩, 中有七孔三毛, 盛精汁三合, 主藏神.”(『鍼方六集』, 『和漢三才圖會』), “素問靈蘭秘典論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三才圖會』), “扈言曰心者深也, 言深居高拱, 相火代之行事也.”(『三才圖會』, 『醫宗必讀』, 『傳悟靈濟錄』) 등이 있다.

그 중 “五臟系皆屬於心”, “四臟皆系於(于)心”,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의 문헌근거는 이미 찾아보았으므로, 나머지 附記의 근거를 찾아보았다.

“心重十二兩, 中有七孔三毛, 盛精汁三合, 主藏神.”은 『難經四十二難』<sup>43)</sup>에서 찾아볼 수 있다.

“扈言曰心者深也, 言深居高拱, 相火代之行事也.”<sup>44)</sup>는 『圖書編』(1562)에서 이를 처음 수록한 뒤로 『醫宗必讀』(1637), 『傳悟靈濟錄』(1869)에서 이를 인용하였다.

仁文化社. 2009. p.334. “心之系與五臟之系相連, 輸其血氣, 滲灌骨髓, 故五臟有病, 先干於心.”

42)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p.334.

43)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p.153.

44) 이 원문은 “사리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조심스럽게 설명하자면 心이란 깊다[深]는 말이니 몸속 깊이 있으면서도 높은 곳에서 자리 잡고 있으니, 相火가 心을 대신하여 행사한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 附記에서 ‘扈言’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다만 두 가지로 추측할 수 있는데 하나는 ‘형설수설 하듯이 어렵잡아 설명한다.’는 뜻이고, 다른 하나는 ‘서적의 명칭’이다.

‘扈言’이란 지리멸렬하여 앞뒤로 사리가 어긋나는 말이라는 뜻으로 형설수설이라는 말과 비슷하다<sup>45)</sup>. 반면에 『扈言』이라는 서적은 明代 회곡작가인 卜世臣(출생과 사망 연도 미상)의 저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sup>46)</sup>.

비록 『扈言』이라는 서적은 현재 국내에서 구할 수 없지만, 卜世臣이 『圖書編』의 저술시기와 동시대(明代) 사람이지만 그가 회곡 작가라는 점과 그의 저서는 모두 醫藥과 관련이 없다는 점으로 추측하면, 附記에서 언급한 ‘扈言’은 서적으로 간주하기 보다는 형설수설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쪽이 더 합리적이다.

## III. 결 론

이상으로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心臟圖 29종은 다양한 變異를 거쳤으며 그러한 變異가 직접적인 해부관찰이 아니라 문헌에 근거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45) 네이버 지식백과(한국고전용어사전). [cited at 3rd February, 2017].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231&cid=41826&categoryId=41826>

46) 네이버 지식백과(중국역대인명사전). [cited at 3rd February, 2017].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02585&cid=42981&categoryId=42981>

명나라 절강(浙江) 수수(秀水, 지금의 浙江 嘉興) 사람. 회곡작가. 자는 대광(大匡) 또는 대황(大荒), 호는 남수(藍水) 또는 대황포객(大荒逋客)이다. 뜻이 커서 작은 일에 구애받지 않는 성격이며, 세속에 어울리지 않고 종일토록 집안에서 저술에만 몰두했다. 사곡(詞曲)에 뛰어났으며 음률에 정통했다. 여천성(呂天成)과 절친했고 그와 함께 심경(沈璟)의 추종자가 되었다. 저서에 『악부지남(樂府指南)』과 『치언(扈言)』, 『다식편(多識編)』, 『옥수청상(玉樹淸商)』, 『괘협언(掛頰言)』 및 『산수합보(山水合譜)』가 있으며, 산곡(散曲)을 모은 『북대황산곡(卜大荒散曲)』이 있는데, 대부분 염곡(艶曲)으로 자구(字句)의 조락이 교묘했는데, 일부 격분을 담은 소수의 작품도 있다. 전기(傳奇)로는 「동청기(冬靑記)」와 「걸취기(乞麴記)」, 「쌍관기(雙串記)」, 「사첩기(四劫記)」 등의 4종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 형태요소(心臟 본체, 내부의 곡선, 心臟 위쪽의 구조물, 五臟系)와 附記로 나누어 그 變異를 분석하고, 형태요소를 현대 해부학과 비교하고, 心臟圖의 문헌 근거를 탐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심장 본체의 모양,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 心臟 으로부터 肝, 脾, 腎, 子宮까지 직접 연결되는 구조물(肝系, 脾系, 腎系, 胞脈) 등은 모두 사실적 묘사를 위주로 하는 현대 해부학의 관점과 매우 다르다.

물론 心臟圖 내에서 해부학적 구조물과 비견되는 부분도 발견되고 있다. 心臟 위쪽의 구조물(원통형의 길쭉한 막대기)은 『臟腑證治圖說因鏡經』과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를 제외한 心臟圖 중 대체로 9개 내외의 마디와 1개의 구멍이 표현된 상부와 마디가 없는 하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상부는 肺의 부속물(肺腕, 肺系, 肺管, 氣管 등으로 표현됨)로서 기관(trachea)에 해당되며, 그 중 하부는 心의 부속물(心系로 표시됨) 또는 肺의 부속물(肺管으로 표시됨)로서 심장의 뒤쪽으로 지나가는 상대정맥(또는 대동맥) 또는 좌측기관지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의 心臟圖에서는 이 구조물(肺腕으로 표시됨)과 별도로 心과 肺를 연결하는 또 다른 肺系를 묘사하였는데, 이는 心臟의 상부에서 肺로 이어지는 폐동맥(pulmonary artery) 또는 폐정맥(pulmonary vein)에 해당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특히 心臟圖에서 肺의 일부로 여겨지는 구조물을 표현한 이유는, 『鍼灸聚英』이후 많은 醫家들이 ‘心은 五臟과 서로 通한다.’는 관점을 지지하였기에 그들이 남긴 心臟圖에서도 心臟과 이어진 五臟系를 그리는 과정에서 心臟과 가장 가까운 肺系(肺에 속하는 여러 마디의 구조물)를 남긴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心臟圖에서 문헌의 실제에 근거한 묘사들을 다수 찾아볼 수 있다. 가령 심장 본체는 대체로 길쭉한 사과모양으로 묘사되어 있는데, 이는 王冰의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762)을 본떠서 아직 피지 않은

연꽃을 형상한 것이다. 『類經圖翼』계열의 『鍼灸拔萃大成』, 『醫宗金鑑』, 『鍼灸重寶記』, 『經絡相法』에서 그 특징이 더욱 잘 드러난다.

내부에 3개의 짧은 곡선은 『鍼灸聚英』계열에는 대부분 표현되어 있지만, 『鍼灸聚英』계열 중 『鍼灸大成』과 『黃帝內經靈樞注證發微』계열과 『類經圖翼』계열과 『鍼灸原樞』계열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다. 특히 『鍼灸聚英』계열 중 『臟腑證治圖說因鏡經』에는 그 대신 心臟의 상단에 두 줄의 선이 가로질러서 마치 둥근 고리처럼 표현되어 있다. 3개의 곡선 또는 둥근 고리는 아마도 『十四經發揮』(1341)의 영향을 받아 心包를 묘사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다만 『鍼方六集』에서는 3개의 짧은 곡선을 『難經·四十二難』에 근거하여 ‘三疇’로 인식한 것으로 추측된다.

五臟系 중 肝系만 일찍이 『靈樞經脈』에 언급되어 있었고, 心臟과 나머지 四臟을 연결하는 肺系, 肝系, 脾系, 腎系는 나중에야 등장하였는데, 『華陀玄門內照圖』(1273)에 근거한 것이다.

附記 중 “五臟系皆屬於心”은 직접적으로 『華陀玄門內照圖』의 “五臟系通於心, 心通五臟系.”로부터 근거한 것인데, 그 학설은 본래 『素問靈蘭秘典論』의 “心者, 君主之官也, 神明出焉.”으로부터 연역된 것으로 추측된다. “五臟系皆屬於心”은 『類經圖翼』에서 처음으로 “四臟皆系於(于)心”으로 변화되었는데 이는 心臟을 제외한 四臟의 系가 곧 心系이며, 결국 五臟系가 모두 4개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다.

이처럼 당시 醫家들이 心臟圖를 模寫할 때, 인체 해부와 같이 직접적인 관찰을 거치지 않았으며, 『素問』, 『難經』, 『華陀玄門內照圖』,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 『十四經發揮』등 여러 문헌적 사실에 근거하여 형태요소를 미세하게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 References

1. Hong WS, Jeong Gyo Hwang Je Nae Gyeong Somun. Seoul.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素問.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2. Hong WS, Jeong Gyo Hwang Je Nae

- Gyeong Yeongchu. Seoul. Dong Yang Ui Hag Yeon Gu Won. 1985.  
洪元植. 精校黃帝內經靈樞. 서울. 東洋醫學研究院出版部. 1985.
3. Hua Shou. NanJingBenYi(in Hua Shou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滑壽. 難經本義(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4. Hua Shou. ShiSiJingFaHui(in Hua Shou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滑壽. 十四經發揮(滑壽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5. Hua Tuo. Hua Tuo Xuan Men Nei Zhao Tu. Taipei. Ziyou Publishing Co. 1976.  
華陀 著. 華陀玄門內照圖. 台北. 自由出版社. 1976.
6. Huang LX edit.. Zhong Guo Zhen Jiu Shi Tu Jian(vol. 1). Beijing. Jingdao Publishing Co. 2003.  
黃龍祥. 中國鍼灸史圖鑑(vol.1). 北京. 青島出版社. 2003.
7. Kim WH. Principles of Korean Medicine. Seoul. Publisher Seongbosa. 1990.  
김완희. 한의학원론. 서울. 成輔社. 1990.
8. Li Chan original work. Jin JP trans.. (Chinese-Korean new translation) Pyeon Ju Ui Hak Ip Mun. Seoul. Publisher BeobInMunHwaSa. 2009.  
李梴 編著. 陳柱杓 譯解. (新對譯)編註醫學入門. 서울. 法仁文化社. 2009.
9. Li Chan. (Pyeon Ju) Ui Hak Ip Mun. Seoul. Publisher NamSanDang. 1991.  
李梴. (編註)醫學入門. 서울. 南山堂. 1991.
10. Wang Bing. ZhongGuangBuZhu HunagDiNeiJing SuWen(in Wang Bing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2006.  
王冰. 重廣補注黃帝內經素問(王冰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2006.
11. Zhang JB. Zhi Yi Lu(in Zhang Jie Bin YiXueQuanShu). Beijing. ZhongGuoZhongYiYao Publishing Co. 1999.  
張介賓. 類經(張景岳醫學全書 中).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12. Jin SY. Research on Atlas of Viscera. Chinese Journal of Medical History. 1994. 24(2).  
靳士英. 五臟圖考. 中華醫史雜誌. 1994. 24(2).
13. Jo HJ. Comparison of 29 Diagrams of Lung originated from Ming Tang Zang Fu Tu(明堂臟腑圖).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16. 29(1).  
조학준.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肺臟圖 29종의 비교. 한국의사학회지. 2016. 29(1).
14. Jo HJ. 조학준. Comparison of 29 Diagrams of Liver originated from Mingtangzangfutu(明堂臟腑圖).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6. 29(2).  
明堂臟腑圖에서 기원한 肝臟圖 29종의 비교.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6. 29(2).
15. Jung HS et al.. An Anatomical Study on the Networks of Five Viscera in Yixuerumen. Journal of Korean Medical Classics. 2017. 31(1).  
丁赫相 외 5인. 『醫學入門』五臟系에 대한 解剖學的 考證. 대한한의학원전학회지. 2017. 30(1).
16. Lee MC et al.. A Study on the Figures of Viscera(臟腑圖) in Sancaituhui(『三才圖會』encyclopaedia illustrations about the all things in nature) by Wang Qi(王圻) of

- Ming-Dynasty. Journal of Korean Medical History. 2007. 20(2).
- 이명철 외 3인. 明代 王圻의 『三才圖會』臟腑圖에 대한 考察. 한국의사학회지. 2007. 20(2).
17. Pan Ping et al.. A concise research into the history of “Mingtang Chart”. Journal of Clinical Acupuncture and Moxibustion. 2008. 24(5).
- 潘萍 외 3인. “明堂圖”源流簡考. 針灸臨床雜誌. 2008. 24(5).
18. Yu Xuan et al.. A Tentative Talk about the Ancient History of TCM Anatomy. Journal of Shandong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15;39(6).
- 余璿 외 3인. 試論古代中國解剖學史. 山東中醫藥大學學報. 2015;39(6).
19. Naver. [cited at 3rd February, 2017].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702585&cid=42981&categoryId=42981>.  
네이버 지식백과(중국역대인명사전).
20. Naver. [cited at 3rd February, 2017]. Available from: URL: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938616&cid=51006&categoryId=51006>.  
네이버 지식백과(서울대학교병원 신체기관정보, 서울대학교병원).
21. Naver. [cited at 3rd February, 2017].; Available from: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5231&cid=41826&categoryId=41826>.  
네이버 지식백과(한국고전용어사전).